

韓國 大學評價 방법의 전환

朱 三 煥*
(本 協議會 評價管理部長)

한국 大學評價의 현실은 평가에 기울인 노력만큼 그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러 複合的인 原因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大學 行政이 지나치게 中央集權的이어서 각 대학들이 他律과 被動에 익숙해져 있다는 현실과 行政監査式 評價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이 專門的 評價의 장애가 되고 있다.

1. 教育의 質 管理와 大學評價의 重要性

教育政策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價値들 중에 '平等(equality, equity)' 과 '質' 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념이 있다. 이외에 '效率(efficiency)' 과 選擇의 '自由(liberty)' 라는 가치도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다 같이 중요하고 또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치들이 葛藤을 일으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 '平等과 均等' 을 추구하다 보면 '質과 效率' 을 잃기 쉽고, '경제적 效率性과 能率' 을 찾다 보면 '선택의 自由' 를 잃게 된다. 선택의 自由를 위해서는 경제적 效率性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이들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할 수 없는 것

이 教育政策의 어려움이다.

한국의 大學教育이 계속 量的으로 팽창하면서 平等的 價値를 추구해 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質의 價値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教育界에서는 계속 大學教育의 質 向上과 質 管理를 주장해 왔다.

教育의 質 管理의 한 過程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大學評價이다. 教育目標과 計劃(plan)을 세워 이를 實踐하고(do) 그 結果를 評價(see)하는 과정을 통해서 教育의 質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은 열심히 세우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실천은 하나 평가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忠南大 文科大學 教育學科 教授로서 本 協議會에 顧問 근무중임.

후자도 전자에 못지않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때로는 評價를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發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評價라는 過程을 거쳐야 한다.

현재 각국에서는 敎育의 質 競爭이 치열하다. 良質의 敎育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만이 國際競爭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判斷 아래 敎育改革 事業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아울러 질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評價에도 關心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大學評價는 大學敎育에 대한 일종의 品質 保證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大學評價는 大學의 責務性이란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이 設定해 놓은 敎育目標을 잘 達成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責務性을 갖고 있고, 대학 전체로 보면 全大學이 大學의 使命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公衆에게 證明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책무성을 위해서 評價는 필요하고 또 원칙적으로 그 결과는 세상에 公表되어야 하는 것이다.

敎育消費者인 學生과 學父母, 社會에게 敎育의 質을 알려주어야 할 責務도 각 대학은 갖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敎育消費者는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각 大學, 學科 敎育의 質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단 1회의 試驗에 의하여 人生의 갈림길이 되는 大學 選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良質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학이나 低質의 敎育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학이나 거의 비슷한 納入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도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學生 候補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상품인 敎育의 질을 알려야 하는 것은 大學의 責務이자 하나의 소박한 商道義에 해당된다. 敎育의 질은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각 대학들이 消費者인 學生과 學父母에게 적극적으로 大學敎育을 팔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본다. 보이지도 않고 당장 그 효과를 알 수 없는 敎育을 판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맹목적인 미사여구나 과대 선전으로 敎育을 팔 수는 없다.

엄격한 評價에 의하여 나온 結果를 가지고 敎育 弘報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도 大學評價는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大學評價는 敎育의 質 管理를 위한 敎育의 한 과정으로 國際 敎育競爭의 時代를 맞아 더욱 關心을 끌게 되었으며 評價에 의하여 나온 質의 程度를 세상에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입장에 있다.

2. 韓國 大學評價의 現實과 問題點

우리나라의 大學評價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한 大學 全體를 하나의 單位機關으로 보아 總體的·綜合的으로 평가하는 機關評價이다. 평가의 기준은 그때그때 개발하여 썼으나 指標化·計量化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하여 우리나라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最高値와 最低値, 平均値를 내어 개개 대학으로 하여금 全國 平均과 비교하였다.

또 하나의 評價는 學問領域에 대한 평가이다. 예를 들면 의학, 약학, 교사 敎育, 법학, 공학계와 같이 대학(교)이라는 機關內的 特殊單位機關이나, 單科大學(院), 學科, 敎育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나 學問領域의 評價가 활발해져야 敎育의 內質, 質의 向上이 가능해질 것이다. 機關評價를 外的인 그릇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學問領域의 評價는 그 그릇 안에 담길 內的 내용물의 質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學問領域은 상당히 광범하고 복잡하며 다양하므로 이 분야의 평가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大學評價의 뿌리는 監査로부터 찾아야 할 것 같다. 官主導의 行政監査의 인상을 아직도 질게 풍기기 때문에 전문적 평가의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평가다운 평가의 출발은 實驗大學評價라고 할 수 있다. 대학으로 하여금 自體分析研究를 하게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교부에서는 專門評價團을 구성하여 現地訪問評價로 확인하고 合格 判定을 받았을 때 補償을 해주고 實驗大學으로 인정을 해주

있던 것이다.

1982년부터 大學評價에 대한 사업이 自律的 協議機構인 韓國大學教育協會에 이관되면서 대학 평가 사업은 제대로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점은 있다.

첫째로 평가를 받는 大學側에서는 겉으로는 평가단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評價委員들도 열심히 평가에 임하다가도 평가해 보아야 아무 效果가 없다는 데 회의를 느낀다. 그래서 한국 대학 평가의 현실은 평가에 기울인 노력만큼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複合的인 原因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大學 行政이 지나치게 中央集權的이어서 각 대학들이 他律과 被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한 대로 行政監査式 평가의 뿌리가 專門的 評價의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評價者나 被評價者나 그저 말썽없이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非生産的인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反作用으로 나온 것이 大學自體評價의 強調이다. 이러한 方向 轉換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평가는 주로 計量的인 평가로 計量化할 수 있는 자료를 각 대학으로부터 받아 각 항목별로 全國 大學의 平均値, 最高値, 最低値를 내어 각 대학의 現實과 비교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計量化할 수 없는 부분의 평가는 엄두도 못낸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質的 評價를 배제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질적 평가도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세째로 지금까지의 評價는 相對評價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각 指標別로 全國 平均과 비교하는 평가를 해왔다. 이러한 相對的 比較評價도 意義가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歷史와 傳統, 事情이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 학교가 설정한 教育目標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정한 評價 基準과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각 대학이 獨特性을 갖고 發展할 수 있도록 評價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각 대학을 個別的으로

평가하고, 개별적으로 評價報告書를 제시해 주는 絕對評價로 補充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네째로 보다 더 根本的인 문제는 評價의 目的과 評價 結果의 活用에 있다. 왜 현재와 같은 大學評價制度를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大學教育의 質을 管理하는 데 평가가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現實 把握의 目的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극적으로 교육의 길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실정도로 보아서 미국의 評價認定制度和 같이 合格·不合格, 또는 通過·失敗, 認定·不認定의 판정이나 결정을 내리는 평가를 할 수 없을 바에는 教育改善에 제일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 스스로가 強點과 弱點, 改善點을 발견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도록 評價가 도움을 주려는 데 주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정한 評價의 週期가 없이 매년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深層的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形式에 그치고 말며, 또 평가에 열중하게 된다 하여도 평가 결과에 의하여 改善하려는 데는 별로 노력을 경주하지 못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評價에도 열중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에 의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길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大學評價의 현실과 문제점의 몇 가지 斷面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한 大學評價 6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向後 5~10년간의 평가를 위한 轉換點 및 強調點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3. 大學評價 方法의 轉換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轉換期를 맞고 있다. 大學街도 여러 면에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大學評價에 대하여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7년 한 해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 發展 方向을 모색해 왔다. 方向 轉換에는 항상 모험이 따르고 또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 옳은 方向이라면 밀고 나가야 할 것이며 옳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

의 協調와 參與, 支持가 있어야 成功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大學教育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急旋回의 方向 전환은 警戒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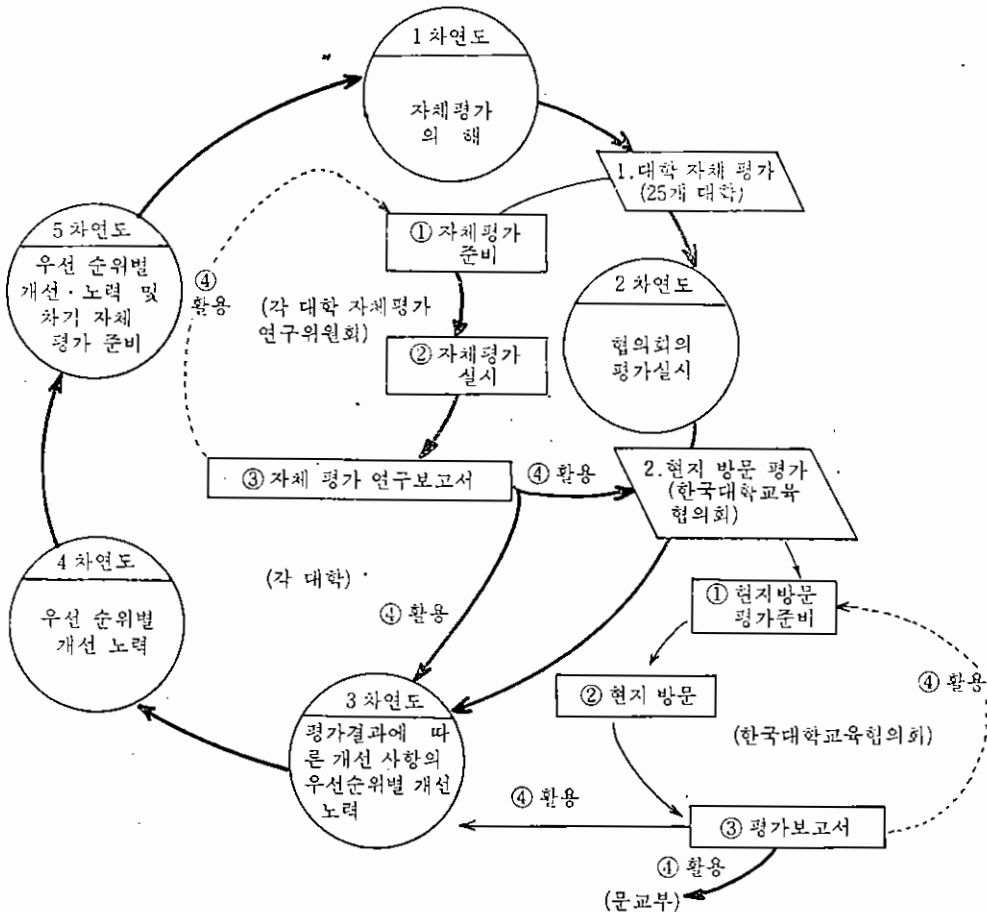
우선 지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公式의 으로 進술해 놓은 大學評價의 目的이나 模型, 規程 등이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이다. 그래서 협의회는 大學評價 便覽을 제작하여 이 便覽에 의하여 大學評價라는 커다란 수레바퀴가 무리없이 굴러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 便覽의 자세한 內容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나 주요 골격만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便覽은 6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은 大學評價를 概觀하고 있는데 대학 평가의 目的과 必要性, 性格과 類型, 大學評價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 대학평가의 發展

過程, 發展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제 II 장은 大學評價의 模型과 過程을 제시·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에 대하여는 곧 이어서 설명하려고 한다. 제 III 장은 각 대학에서 해야 할 大學自體評價의 過程을 안내하고 있다. 제 IV 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現地訪問評價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 V 장은 大學機關評價의 基準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VI 장은 大學評價에 필요한 최소한의 原則과 規程을 뽑아 놓으려고 노력하였다. 附錄에는 大學評價 關係文獻과 資源人士의 目錄을 제시하여 평가 담당자로 하여금 참고하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둘째, 大學評價의 5년 週期 模型을 만들었다. 매년 또는 수시로 평가하던 것을 5년 주기로 정기적인 평가를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評價 週期에 따른 大學評價 模型



이 모형에 의하면 제1차 연도에는 大學自體評價를 하고 2차 연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한 외부 평가 전문가의 現地訪問評價를 실시하고, 3~5차 연도는 앞의 두 해에 걸친 評價結果에 의하여 優先順位에 따라 개선 노력을 하고, 다시 다음 주기 1차 연도의 自體評價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첫째로 改善努力에 강조점과 비중을 두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평가에 2/5의 비중을 두었다면 평가 결과에 의한 改善과 活用に 3/5의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서 評價의 목적이 판단이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改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특징은 각 大學 自體의 自體評價에 강조와 비중을 두는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5년 주기가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흘러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現地訪問評價는 外部에서 평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도와주는 입장이다. 評價의 主導權은 각 大學이 가져야 하며 대학의 自律的 評價와 自律的 改善努力에 의존하고 기대한다. 각 대학이 발전 의지와 개선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해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를 自體分析研究라고 하여 일정한 양식에 통계수자만 적어 내던 되었지만, 이제는 이름도 '自體評價研究'라고 하여 대학 자체에서 分析뿐만 아니라 評價까지를 하도록 한 것이다. 大學自體評價의 강조로 전환하려는 데는 基本前提가 있다. 우선 각 대학의 자율적 자체 평가 능력을 믿는다는 점이다. 각 대학이 자체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면 이 모형 전체가 허물어진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실험대학 시기에 훌륭한 자체 평가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다음은 각 대학이 스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한다는 基本假定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징의 세번째는 評價의 過程을 ① 準備, ② 實施, ③ 結果(報告), ④ 活用(피이드백)의 4 단계에 의하여 자체 평가와 현지 방문 평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번째 특징으로 個別大學의 獨特性을 인정하는 평가를 하고 평가 보고서도 개별 대학별로 작성하여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에

는 전국 대학을 모두 평가하고 현지 방문은 概集에 의하여 소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모형에서는 전국 115개 회원 대학을 5년에 나누어 약 20~25개 대학을 全面評價와 現地訪問評價를 모두 하도록 하여 深層評價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세계, 計量的 評價로부터 質的 評價와 計量的 評價의 調和로의 전환이다. 단순히 統計 樣式에 수자를 적어 넣던 평가로부터 質的·記述的 평가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평가 기준도 項目만 제시했었는데 文章에 의하여 當爲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째, 學問領域評價도 영역별로 5~10년 週期로 평가하도록 하고 차차 專門團體나 學會 및 質 높은 평가를 위하여 협동·노력해야 할 입장에 있다.

끝으로 1988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大學評價 실무자와 평가 전문가의 研修 機會를 확대하여 評價 專門人力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상 '評價研究의 해'인 1987년도를 계기로 우리나라 大學評價의 방향 전환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모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네 가지의 특징과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성공한다 해도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評價로 끌어 올리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남아 있다. 評價關係用語와 概念 자체에 대하여도 學者들간에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大學評價便覽」에서 사용한 용어만이라도 큰 잘못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여 통일이 되었으면 한다.

4. 大學發展의 轉機

이러한 大學評價의 轉換이 각 대학 발전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質 向上의 轉機가 되었으면 한다. 미세한 評價方法의 한 부분이 바뀐다고 하여 수백, 수천 년 내려 온 大學教育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각 대학으로서도 評價 訪問의 계제에 大學의 모든 事務와 行政을 整理하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지만 한다 해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 總·學長의 입장에서 자신의 教育哲學과 信念, 方針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스며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評價를 계기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私學에서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나 설립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評價의 機會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發展의 계기로 삼아야만 많은 사람이 귀중한 시간과 정력, 재정을 투입하는 評價가 의미를 갖게 된다. 評價는 대학을 발전으로 이끌 수 있게 하는 教育의 중요한 過程이다.

또 우리나라 大學教育 全般을 가리켜 주는 눈금의 역할도 해준다. 방향 감각 없이 열심히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대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評價를 통해서 방향 감각을 갖고, 눈금이 가리키는 위치를 확인하고 노력할 때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大學은 自律을 외치고 있고 또 당연히 大學의 自律化는 이루어져야 한다. 自律은 소중하다. 자율에는 그만큼의 責任이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다. 大學 自體의 自律的 評價에도 무거운 짐이 따른다. 과거와 같이 한 사무직원이 일정한 樣式에 통계 수자만 조사하여 적어 넣던 自體分析研究는 일은 쉬웠을지 모르나 대학 발전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 평가에서는 각 대학에 전문가들로 自體評價研究委員會를 구성하여(기존 조직을 이용해도 좋음) 장기간에 걸쳐 自體評價를 실시하고 전보다 두툼한 自體評價報告書を 現地訪問 評價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짐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각 대학은 強點과 弱點을 발견하고 이를 改善하기에 노력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 자체의 장기 계획에 의하여 평가하지 못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계획

에 의하여 評價의 해(年)가 정해지는 데 있다. 앞으로는 학교의 계획에 맞추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부담은 과거에도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지만 않던 일을 하게 됨으로써 당분간 어려움이 가중되겠으나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면 우리의 大學은 그만큼 成長하리라 본다. 여기에 會員大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요청된다.

大學이 계속 지금과 같은 好景氣를 맛볼 수는 없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많은 統制를 받아 왔다고 불평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과보호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지금처럼 계속 학생들이 구름때 처럼 몰려 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수준 높은 대학이나 질 낮은 대학이나 똑같은 등록금을 받는 날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大學이 완전 自律에 맡겨진다면 그때는 自由競爭體制로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정부의 통제라는 우산 밑에서 보호를 받고 이를 즐기고 있던 대학들은 生存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각 대학들이 하루빨리 올바른 평가를 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 개선에 노력하여 競爭力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금 필자는 大學自體評價를 강조하고 있지만 5~10년 후에는 會員大學들이 스스로 會員大學의 質을 統制하자고 나올지도 모른다. 때로는 같은 회원 대학으로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대학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대학은 다시 이런 協議機構와 같은 外部에 의한 강한 統制를 스스로 불러들이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각 대학은 빨리 自體 整備를 하고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意味 있다고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大學評價 事業이 會員大學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일의 意味를 모든 會員이 느낄 수 있는 轉機가 되기를 기대한다. *